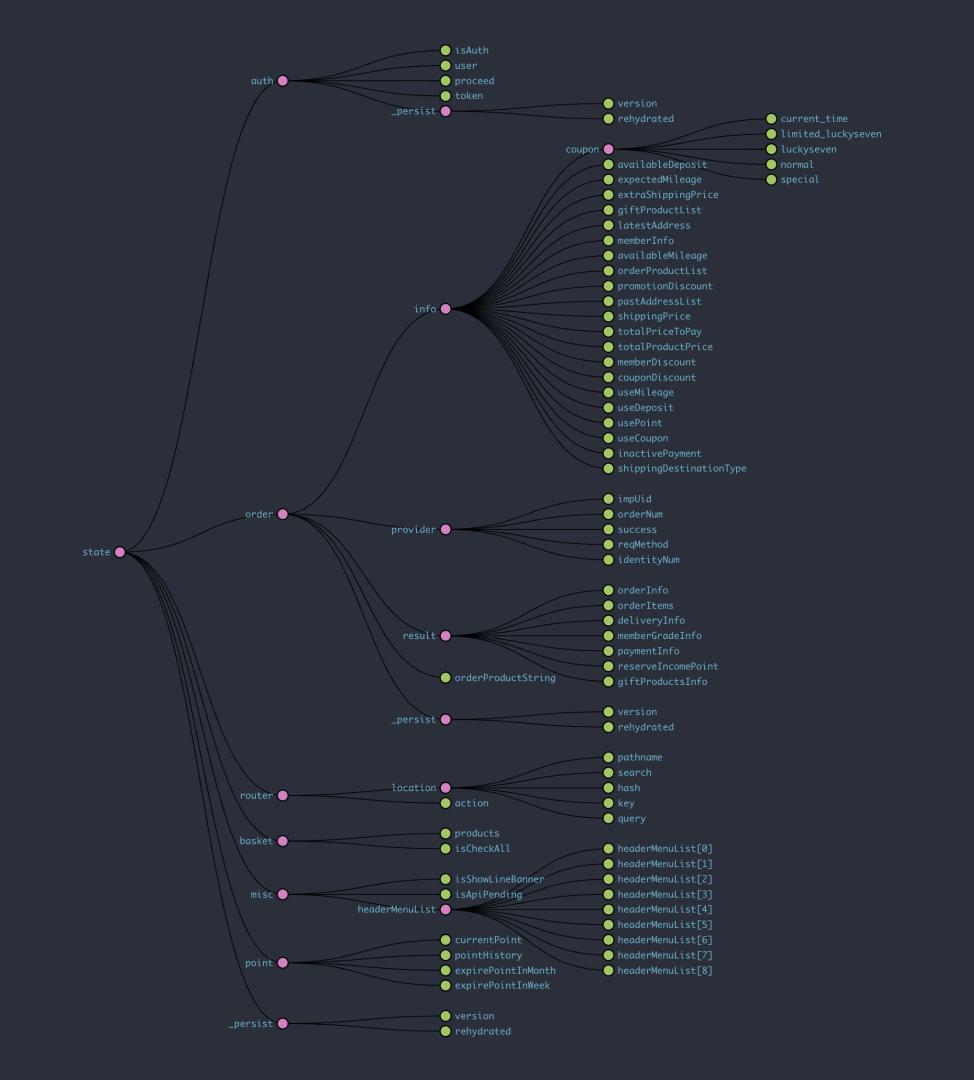
Why should we use GraphQL?

말로만 도입하자고 하기엔 논리가 부족해서

말로만 도입하자고 하기엔 논리가 부족해서 정말로 GraphQL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



백번 양보해서 GraphQL 좋다고 하자.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,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? 상태 관리의 어려움





스키마 관리의 어려움

Do you know...?

- Product
- TogetherProduct
- EnhancedProduct
- QuickAddProduct
- OptionWithProduct
- OrderProduct
- ProductInOrderForm
- ProductInBasket

사용하는 View(페이지, 화면)마다 조금씩 다른 Product 관련 스키마들

타입 관리의 어려움

뉴욕타임즈 선정, 타입스크립트 쓰면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 1위

```
export type Product = {
  avg_rating: number;
  consumer_price: number;
 display_info: DisplayInfo;
  display_price: number;
 hot_issue_title: string;
 id: number;
 image_01: string;
 image_02: string;
 image_03: string;
  image_04: string;
 is_individual_delivery: boolean;
 is_shipping_free: boolean;
  is_sell: boolean;
  max_order_limit: number;
 min_order_limit: number;
1};
```

인터페이스 정의하기 🟆

컴포넌트 관리의 어려움

주로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:

- 적절한 타이밍에 데이터 가져오기 & 전달하기
- 가져온 데이터의 안정성 정말 페칭이 끝났을까?
- 로딩 상태 표시하기

GraphQL이 해결할 수 있을까?

정확히 하자면 GraphQL는 쿼리 언어일 뿐, GraphQL 클라이언트가 해결할 수 있을까?

예) Apollo Client, Relay, Urql...

- 상태 관리의 어려움
 - GraphQL 클라이언트의 캐시 레이어 활용

- 스키마 관리의 어려움:
 - 서버에서 도메인 간의 관계를 스키마를 통해 정리
 - 클라이언트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만 선언해서 요청

- 타입 관리의 어려움:
 - GraphQL Code Generator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 자동 생성
 - Query 응답 결과도 자동으로 생성

- 컴포넌트 관리의 어려움:
 - 선언적인 데이터 페칭
 - Suspense 를 사용하여 데이터 페칭이 완료되었음을 보장
 - Fallback UI 제공

해결할수있다

고 생각합니다

Roadmap

- GraphQL 쿼리 서버 작성
- 첫 단추는 홈 큐레이션 개편
-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

end of slides.